

한 지방 두 투표소 '혼란'... 48cm 긴 투표용지에 '깜짝'

제주지역에서 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15일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권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에 참여했다. 이어 개표 작업은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이뤄졌으며 개표는 16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번 개표관리에는 8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48.1cm의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했다. 투표에서 개표가 지 벌어진 이모저모를 모아봤다.

차분한 분위기... "그래도 즐겨야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투표소로 발걸음.

선거 당일인 15일 오전 백록초등학교에 마련된 제9·10투표소에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선 채 차분하게 투표 순서를 기다렸고, 부부와 모자·부녀 시간도 보였지만 대부분 혼자 투표소를 방문.

임모(27)씨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때문인지 예년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기분"이라며 "그래도 나름 선거를 즐기고 있다"고 언급. 또 임씨는 한 곳에서 2개 투표소가 운영돼 '내 투표소'를 찾는데 다소 혼

란스러웠다고 토로. 사전투표날 길게 늘어진 줄에 투표를 포기해야했던 40대 한 주부는 "일어나자마자 일찍 투표소를 찾았다"면서 "거리두기 등 조용한 분위기라서 그런지 투표한 것 같지 않은 기분"이라고 소개.

생애 첫 투표를 했다는 20살 이모씨는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됐다"고 소감을 전한 후 이어 "오기 전에 청년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나마 괜찮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했다"고 언급. 항상 같이 투표장을 찾는다던 70·80대 노부부는 예년과 다른 발열체크,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의 절차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누구나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고 전인.

"배 타고 나가 사전투표했어요"

○...제주의 부속섬인 '섬 속의 섬' 추자도와 비양도, 가파도, 우도 등에서도 일제히 투표가 진행.

섬 주민들은 추자도 대서리 경로당과 추자도 신앙1리 경로당,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장, 가파리 경로당, 우도 생활문화센터 등을 찾아 투표. 하지만 마라도에는 투표소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본섬인 제주도로 나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

한 마라도 주민은 "마라도에 4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미리 모슬포로 나가서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헛갈리는 투표소... "여기가 아닌가?"

○...제주도 내 유권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 제주시에 한 주민센터 당직자는 이날 오전에만 투표소를 잘 못 찾아온 10여명에게 투표소를 안내.

이 당직자는 "대부분 전입한지 얼마 안돼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었다"면서 "선거공보물과 안내문을 봤지만 미처 확인을 못하고, 앞서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바 있어서 오신 것 같다"고 설명.

다 쓴 비닐장갑 '나물라라' 눈총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이 지급. 행정은 비닐장갑 수거를 위해 출구에 비닐장갑 수거함을 설치했지만, 수거 작업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거리 곳곳에서 버려진 비닐장갑들이 즐비.

제주시민 김모(48)씨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는 것에 대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비닐장갑을 지급한 것은 잘한 것 같다"면서도 "비닐장갑 수거 작업 시에도 직접 공무원 등이 지키면서 수거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지적.



16일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마련된 4·15 총선 서귀포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48.1cm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있다.

무기표·욕설 등... 이색 무효표 속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작업 초반부터 다양한 무효표가 속출.

이날 '심사집계부'에서 무효표로 분류한 투표지를 보면 ▷아무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모든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특정 후보에게 기표 했지만 기표 흔적이 희미한 투표지 ▷욕설을 써넣은 투표지 등 다양.

아울러 무효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려는 참관인과 개표사무원간 신경전도 발생. 무효표로 분류된 이유를 묻는 경우에서 나아가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일부 참관인 때문에 양측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촉발.

한 개표 사무원은 "무효인 투표지를 확인하는 것은 참관인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무슨 범칙현장을 찍듯이 다짜고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행위는 가뜰이나 바쁜 사무원들의 심기를 예민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

반면 한 여성 참관인은 "제대로 기표가 됐는데, 혹시나 잘못 분류될 경우를 위해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표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무원들도 참관인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일침.

48.1cm 투표용지에 수작업 개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길이만 48.1cm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지는 개

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개표가 진행.

이번 선거에서 첫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총 35개의 정당이 출사표를 던져 공인 투표지 분류기가 처리할 수 있는 투표용지 길이는 최대 34.9cm 정도이기 때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및 도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는 투표 당일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탓에 개표 종료 시점은 16일 아침, 최종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설명.

출구조사 탄식vs환호... 희비 교차

○...제주지역 4·15 총선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는 환호성,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에서는 탄식이 교차.

15일 오후 6시 15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제주시갑 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제주시를 오영훈 후보, 서귀포시 위성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표출.

이같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방송을 지켜보던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는 지지자들의 환호성을 지르는 등 고무된 분위기.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제주시갑 장성철 후보와 제주시를 부상일 후보,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 캠프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으며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 특별취재반



16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4·15 총선 제주시 개표소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밝고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기업!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꿈,
그 꿈을 향한 큰 걸음을 웅진건설이 제주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진건설
토목·토공·철근콘크리트·상하수도

代表理事 宋承天

제주시 청사로 73번지(5층)
TEL.759-0382~4, FAX.759-0385

